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년 10월 21일(금) 10:00
배포일시	2022년 10월 20일(목) 14: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담당자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044-550-4748, awaker2@kdi.re.kr)

KDI, 2022 글로벌 포럼 개최

-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 -

- 일 시: 10월 21일(금) 09:30~12:00
- 장 소: 서울 엘타워 엘하우스홀(8층)
- 주 최: KDI

□ KDI는 10월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을 주제로 '2022 글로벌 포럼'을 개최

-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과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가 간, 국가 내 디지털 격차가 심화, 중·저소득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
- 이번 포럼은 경제·사회 분야의 디지털 정책 현황과 도전 요인, 정부 및 민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

-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은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 전반에 향상된 서비스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국가 간 디지털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과 협력에 기반을 둔 디지털 혁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밝힘
- 포럼은 기조연설, 특별세션과 주제발표로 구성, 각 주제별 연사들의 발제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
-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테츠시 소노베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 소장은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가 간, 국가 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 혁신 시스템의 도입과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강조
 - 「특별세션 아태지역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와 방향」에서는 호주, 한국 및 아세안 간 디지털 경제협력 및 혁신 사례와 향후 과제를 소개
 - 「주제발표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와 산업의 역할」에서는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법제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기회,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관한 한국의 사례 소개
- 이후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최지영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장, 랜디 멩크 주한덴마크대사관 참사관,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협력국의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방향을 논의

- ❖ 첨부 1. 세부 일정
- ❖ 첨부 2. 연사 프로필
- ❖ 첨부 3. 발표 요약문

❖ 첨부 1.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09:30~10:00	<p>개회식</p> <p>개 회 사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p> <p>기조연설 테츠시 소노베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 소장</p>
10:00~10:40	<p>특별세션: 아태지역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와 방향</p> <p>발 표 1. 호주-아세안 디지털 무역 협력 전략 벤 카스 호주 외교통상부 디지털 무역 및 신기술 팀 차관보 대행</p> <p>발 표 2. 한-아세안 표준 협력 네트워크 이희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p> <p>발 표 3. 아세안 디지털 경제 협력 전략 시바람 수퍼라마니안 아세안 사무국 디지털경제과장</p>
10:40~11:10	<p>주제발표: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와 산업의 역할</p> <p>발 표 1. 그린·디지털 경제전환을 위한 법제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중심으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p> <p>발 표 2. 글로벌 공급망의 기회와 위기 박건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p> <p>발 표 3.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p>
11:10~12:00	<p>종합토론: 협력국의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방안</p> <p>사 회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p> <p>토 론 최지영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장 랜디 멩크 주한덴마크대사관 보건 및 의료 참사관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장</p>

❖ 첨부 2. 연사 프로필

기조연설. 지속가능한 개발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테츠시 소노베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 소장



- 現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장
- 前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부학장 및 교수
- 前 일본 도쿄도립대학 경제학과 교수

특별세션: 아태지역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와 방향

발표 1. 호주-아세안 디지털 무역 협력 전략

벤 카스 호주 외교통상부 디지털 무역 및 신기술 팀 차관보 대행



- 現 호주 외교통상부 디지털 무역 및 신기술 팀 차관보 대행

발표 2. 한-아세안 표준 협력 네트워크

이희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現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現 한국호주재단 이사
- 前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방문교수
- 前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 前 호주 멜버른대학 교수

발표 3. 아세안 디지털 경제 협력 전략

시바람 수퍼라마니안 아세안 사무국 디지털경제과장



- 現 아세안 사무국 디지털경제과장
- 前 말레이시아 정부 직속 성과 관리 및 전략 부서 부사장
- 前 PwC 말레이시아 사무소 매니저
- 現 KPMG 카타르 사무소 매니저

주제발표: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와 산업의 역할

발표 1. 그린·디지털 경제전환을 위한 법제화: 스마트그린산단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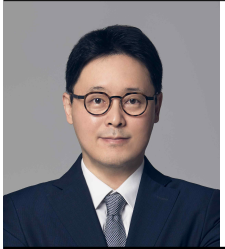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現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前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7기, 8기)

발표 2.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기회

박건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 現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수
- 前 KAIST 경영대학 생산전략 및 경영과학 분야 조교수, 부교수
- 前 블룸버그 신용평가팀 계량분석 연구원

발표 3.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現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교수
- 現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문위원
- 現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객원연구위원
- 現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 前 미국 거버너스주립대학 조교수

종합토론: 협력국의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방안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사회)



- 現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前 KDI 규제연구센터장
- 前 KDI 경쟁정책연구부장
- 前 국토교통부 장관 자문관
- 前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 및 연구위원

최지영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장



- 現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장
- 前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 前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실 디지털미디어기획팀장

랜디 명크 주한덴마크대사관 보건 및 의료 참사관



- 現 주한덴마크대사관 보건 및 의료 참사관
- 前 덴마크 의약품청 의료 전략 및 혁신부서 수석 컨설턴트
- 前 룬드백 글로벌 상품 고문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 現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 現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지속가능발전센터장
- 前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
- 前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前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연구교수

❖ 첨부 3. 발표 요약

기조연설. 지속가능한 개발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테츠시 소노베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 소장

- 전 세계의 탄력적인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과학 및 혁신정책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이 중요

- 교육, 농업, 재정 서비스, 헬스케어, 정부 서비스,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사례가 있으며, 그 효과가 나타남.
 -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효율성·생산성 향상, 회복탄력성 강화, 지속가능한 환경과 포용적 경제 발전에 기여, 디지털 경제로의 원만한 전환 등이 존재
 - 도전요인으로는 사이버 위협, 데이터 보안, 정보 격차, 시장 독점, 반경쟁 행위를 포함하여 디지털을 활용한 선동행위 등이 존재

- 디지털화에 있어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술 이전 및 설계 등 혁신활동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협 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가하여 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할 필요

- 또한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 역내 및 글로벌 경제 통합, 국제 조세, WTO 개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필요

[특별세션: 아태지역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와 방향]

발표 1. 호-아세안 디지털 무역 협력 전략

벤 카스 호주 외교통상부 디지털 무역 및 신기술 팀 차관보 대행

- 디지털 무역이란 소프트웨어, 책, 음악 등의 콘텐츠를 디지털화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하는 행위로 정의
 - 호주 경제에 있어 디지털 무역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존재
- 디지털 무역 규제는 온라인 환경에서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신뢰 구축과 혁신과 성장을 가능하게 해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패러다임에 매우 중요
- 호주 정부는 호주의 경제적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 전략을 활용
 - 무역 촉진, 신뢰성, 데이터 흐름 및 현지화(localization), 협력 등 네 가지 규칙에 따라 지지, 협상, 지원의 세 가지 액션을 취하며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 중
- 호-아세안 디지털 무역 협력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알리고 국제적인 규범의 인식을 높임.
 - 향후 호-아세안 협력을 통해 아세안이 현재 마주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도전과제들을 보완하고, 아세안 지역 내 통일된 디지털 무역 규제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함.

발표 2. 한-아세안 표준 협력 네트워크

이희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아세안은 지역 통합 및 단일 시장을 목표로 ‘아세안 연결성 마스터플랜¹⁾’을 수립
 - ‘표준’은 통합과 연계성(Connectivity)을 지향하는 아세안에게 매우 중요
 - 또한 아세안 전반에 걸쳐 데이터 및 디지털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

- 오늘날 디지털 기술표준은 지정학적 경쟁의 대상으로 격상
 - 디지털 기술표준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일부 아세안 회원국의 디지털 기술표준 분야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이 중요해짐.

-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²⁾’ 설립을 합의
 -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징검다리로 활용,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준비 중
 - 향후 한-아세안의 표준 공동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디지털 표준 고위과장’ 등 다양한 교류 협력 방안을 기획 중

1)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2) ASEAN-Korea Standardization Joint Research Center

발표 3. 아세안 디지털 경제 협력 전략

시바람 수퍼라마니안 아세안 사무국 디지털경제과장

-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약 8천만 명의 새로운 인터넷 사용자와 6천만 명의 새로운 디지털 소비자가 등장하는 등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
-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서비스 및 상품의 총 거래 매출액(GMV¹)이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어 전자상거래가 디지털 경제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
 - 2025년에 디지털 소비자들의 총 거래 매출액이 약 3.5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 이 중 약 64%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일 것으로 예상
 - 또한 2025년 총 거래 매출액의 약 53%가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이뤄질 것이며, 전자상거래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디지털 금융서비스(핀테크 등)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2030년에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총 거래 매출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 위와 같은 전망은 아세안 각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 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에 원동력을 제공할 것
- 아세안의 경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아세안 정상들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BSBR²을 채택
 - 2025년까지 역내 디지털 통합 기반 및 아세안 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³) 협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
 - 디지털 경제분야 중 무역, 결제 수단 및 식별,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디지털 역량강화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계획을 추진

1) Gross Merchandise Volume

2) BSBR: Bander Seri Begawan Roadmap, 아세안의 경제회복과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제 로드맵

3)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주제발표: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와 산업의 역할]

발표 1.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법제화 : 스마트그린산단을 중심으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그린·디지털 경제전환을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 및 강화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
 - 첨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행정관리체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중요성이 대두
 - 한국은 규제특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규제완화에 노력을 가하고 있으나, 친환경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규제강화적 요소가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그린·디지털 경제전환을 위해 정부가 규제수단에 대해 합리적인 재검검을 하며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스마트그린산단'은 계획 및 초기 실행단계에 있으나,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산업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모범 사례
- 스마트그린산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 수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
 - 스마트그린산단의 신규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 후 운영 중인 산업 단지가 환경적 취약점을 극복하고, 그린·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과 합리적인 규제수단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

발표 2. 글로벌 공급망의 기회와 위기

박건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 자연 재해, 국제 유가 변동, 국제 금융 위기, 지역 가치 사슬(RVC¹) 등의 위험요인들이 글로벌 가치 사슬(GVC²)를 위협

- 이러한 변화 및 위험요인은 모두 GVC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켜 GVC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
 - GVC와 관련된 리스크로는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와 같은 외적위험요인과 전략적, 기술적 리스크와 같은 내적위험요인이 존재
 -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더욱 더 많은 투자를 추진
 - GVC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현상으로는 수요가 상부단계로 올라갈수록 GVC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채찍효과(Bullwhip effect)와 하부단계로 내려갈수록 공급자의 영향이 확대되는 물결효과(Ripple effect)가 있음

- 효율적인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과의 협업 필요성 증가
 - 리스크 완화 전략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공급망 관리에 필요한 필수 요인들을 파악, 필수적인 공급망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개발해야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가 가능

1) Regional Value Chain

2) Global Value Chain

발표 3.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개발도상국은 낮은 건강수준과 부족한 의료자원으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하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건강수준을 지속가능하게 향상할 수 있음.
- 스마트 헬스케어는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와 정보통신(ICT) 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지능화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중심 의료 패러다임
 - 하드웨어(웨어러블 디바이스, u-health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모바일헬스,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 서비스(원격의료, 스마트병원)가 스마트 헬스케어의 범주에 포함됨.
- 세계보건안보지수(GHSI¹⁾) 분석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의 헬스케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그 결과 예방과 조건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
- UN, UNICEF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르완다, 케냐, 네팔, 에티오피아 등에 의료인력을 위한 디지털 이러닝 플랫폼 구축, 모바일 서비스 구축 등과 관련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중
- 개발도상국에 스마트 헬스케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인력, 정부규제 등 제약 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별 상황에 맞는 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

1) Global Health Security Index